교회 소식 Announcements

1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님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2 성찬식

오늘 예배시간에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추수감사주일 Thanksgiving Sunday (11/22)

다음 주일(11/22)에 추수감사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헌금은 주보에 첨부된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21(토)까지 강단장식을 위한 과일(채소)를 도네이션을 부탁드립니다.

4 2027 예산위원회 (11/29)

내년도 예산을 의논하기 위한 모임을 11/29 주일 오후에 진행하겠습니다.
2027 예산제직회(12/6), 2027 예산공동의회(12/13)

5 소그룹 성경공부 개강

토요아침반 (7:00) : 12/5(토) 부터 / 주제 : 책별성경연구
주일오전반 (9:30) : 12/6(주) 부터 / 주제 : 기독교기본교리

6 기도요청

환우 : 강연구 김선희 / 새로 준비하고 있는 유초등부 사역

교회의 비전 Church Vision

샬롬의 공동체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17)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안에서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하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넘어 하나됨을 경험하며, 삶의 참된 기쁨과 섬김의 기쁨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함께 만나는 곳, 그곳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 새소망교회는 샬롬의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준
시무장로	박승훈
은퇴장로	이병철 김승배
유초등부	준비중
예배반주	전지원

후원 선교사 및 단체

강태윤 선교사	팔레스타인
권오병 선교사	캄보디아
이성수 선교사	멕시코
밀알선교단	장애인사역
문서선교	기드온, 크리스천타임즈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성찬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기 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찢으신 살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주님의 헌신이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없이 성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성찬은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참여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찬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같은 떡과 같은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향한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고 성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회개와 믿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김성준 목사

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담임목사 **김성준**
2820 Lassier Rd. Ste. C150, Marietta, GA 30062
(770) 579-3546
www.atnewhope.org

주일 오전 11시

주일예배순서

인도: 김성준 목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입례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빈 들에 마른 풀 같이(183), 이 기쁜 소식을(185)	다같이
기도		염순일 집사
성찬		인도자
성경봉독	창세기 2:7	인도자
설교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김성준 목사
임직식		김성준 목사
+봉헌과 축도		김성준 목사
환영과 교회소식		인도자

+ 표는 일어서서 드립니다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시)

인도 : 김성준 목사

성경본문 골로새서 1:9-12 **설교제목** 사도 바울의 기도 (4)

예배 담당자 안내

	기도	안내/봉헌	강단헌화	친교
이번주	염순일	이제시카		김성준/한미영
다음주	박승훈	민영기		추수감사친교

설교요약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창세기 2: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딤후 3:16)

1.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창 2:7)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창조의 세계를 돌보고(창 2:15),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창 2:16),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존재(창 2:18)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거룩한 예배, 거룩한 노동, 거룩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2.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새로운 호흡을 가진 존재입니다. (요 20:22)

하지만 사람의 타락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숨쉬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호흡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창조의 세계를 돌보는 거룩한 노동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도,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룩한 관계의 일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탄식의 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롬 8:22)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요 20:22)"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호흡(숨), 곧 성령을 우리는 받아 다시 본래의 사명, 곧 창조의 세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3.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시작된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집니다.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령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품고 있는 성경과 만날때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호흡으로 충만해지고,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교훈과 바르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본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소그룹 나눔 질문

01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존재에 대해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02 오늘 나의 삶에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03 최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나 태도, 삶의 방향을 변화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설교노트